

文대통령 “추경 예산 편성 검토해주길”

코로나19 사태 관련 수석보좌관회의서 “위축된 지역경제 되살리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열고 “기업의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 IMF(국제금융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금융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가장 절박한 불확실성으로 규정하면서 각국 정부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의 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며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부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비상한 현장을 타개하는 선봉에서서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가 경제 충격을 완화하는 버팀목이면서 경제 회복의 미중추 역할

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정부가 준비 중인 경기보강 대책의 시행에 속도를 더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이번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보회의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등 범의학적·전문가 단체가 모인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에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한편 경제적 피해도 더 커지고 있다”며 “방역과 경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전문가들에게 활발한 논의를 부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속출하고 있는 발원지, 신천지 교회에 대해선 “현재 정부는 다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 전수조사와 진단 검사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며 “특별 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는 물론 다른 지역사회로 감염 확산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모든 위생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방역당국, 민간의료기관 등 모든 역량을 모아 총력으로 방역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우리의 방역역량과 의료 시스템을 믿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경제 시국에 대한 처방도 특단으로 내린다.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라며 “결코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이든 국가든 위기

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위기에 대처하는 자세와 역량”이라며 “국가적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상상 이상 저력을 보여왔다. 이번에도 우리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언급하며 “바이러스가 불안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 우리가 가진 위기 극복 역량을 믿고 감염병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다 같이 힘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접경 지역 정비에 올해 2160억원 투입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 계획 확정

정부가 올해 2160억원을 들여 개발이 정제되었던 접경 지역 일대를 정비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등 7개 부처와 함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2011~2030년)의 2020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계획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개발이 정제된 접경 지역 15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225개 사업에 총 13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이다.

인건 강화군·웅진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고양시·양주시·동두천시·포천시,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춘천시가 대상이다.

그간 약 3조원을 들여 관광자원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는 53개 사업에 2160억원을 투입한다.

국비 1206억원, 지방비 829억원, 민자투자 125억원이다.

사업 분야는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19개·499억원), 생활SOC(사

회간접지원)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15개·644억원), 균형발전 기반 구축(8개·439억원), 남북 교류협력 기반 조성(11개·578억원) 등 4가지로 구분된다.

분야별 주요 투자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2년간 83억원을 들여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접경지역 4곳에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을 설치한다.

270억원을 투자해 민간과 군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거점형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7곳 확충한다. 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46억원을 들여 ‘해안 및 수상레저 시설’도 만든다.

또 남북 분단의 현상과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조성에 102억원, 한탄강 주변 수상레저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인 ‘한탄강 수상레저길’ 조성에 94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남북 교류·협력을 대비한 교통망 확충도 계속 추진한다. 현재 뱃길로만 갈 수 있는 영종도~신도간 교량을 놓는 평화도로 건설사업에 82억원을 투자한다.

/뉴시스

전북도 소방본부, 전북대 등 4곳에 ‘코로나19 전담구급대’ 배치

전북도 소방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학 기숙사에 ‘코로나19 전담구급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는 개강을

앞두고 3800여명의 중국인 유학생이 도내 대학으로 돌아올에 따라 유증상자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중국인 유학생이 200명 이상인 학교로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등 모두 4곳이다.

전담구급대는 유증상자를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고 귀가까지 책임지며,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민약의 상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앞서 도 소방

본부는 지난 15일 중국인 유학생 이송 대응을 위해 유학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읍면 이송 팀들을 재배치했다.

홍영근 도 소방본부장은 “중국인 유학생 이송에 전북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앞장

정읍·진안,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2019년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정읍시와 진안군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24일 도에 따르면 ‘기업하기 좋은 전북 만들기’ 평가는 매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전국기업환경지도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시군을 선정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기업애로 해소 및 지원, 기업규제 개선 등 전라북도의 현실에 맞게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항목 배점을 높여 진행했다.

그 결과 인구수, 제조업체 수 및 산업 규모 등을 고려한 평가대상 인구수 8만 이상 그룹에서는 1위 정읍시, 2위 군산시, 3위 익산시가 차지했다.

인구수 8만 이하 그룹에서는 1위 진안군, 2위 무주군, 3위 부안군이 각각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정읍시는 16개 평가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특히 기업애로 해소 전담창구 설치 및 현장 기동반 운영, 관내 기업 동향 파악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에서 도내 최고득점을 받았다. 진안군은 기업 동향 파악과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각 시군에서는 기업애로 전담창구 설치,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기동반’ 운영, 기업과 공무원을 연결해 돕는 기업후견인제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6개 기관에는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총 2억원의 예산으로 각 그룹 1위 5000만원, 2위 3000만원, 3위 2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올해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평가에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기업지원 지표를 새로이 조정·추가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농민 공익수당 신청 대상 확인하세요”... 4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서 신청·접수

전북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작된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제히 신청받고 있는 농민 공익수당은 최초 시행인만큼 ‘나도 대상이 될까’라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시군 읍면동 담당자 설명회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문의사항을 공유해 나가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신청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도내 거주를 하더라도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도 내에 2020년도 직전 2년간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하고 농업에 종사한다든지, 실제 거주를 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내 전라북도 외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갔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관련 법상 농촌이 아닌 도시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농가,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농업 부산

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농가 등 세부 지침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농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이후에도 적발될 경우 농민 공익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농민 공익수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하고, 농업경영체에 대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환 영
스피치 · 긴장해소 · 웃음치료(힐링) · 면접		
<p>현대는 소통의 시대, 능력의 시대, 이미지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복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현대인의 필수로 자리 잡은 본 과정에 주저하지 마세요. 저렴한 등록금으로 각 평생교육원에서 즐겁게 주, 야간반으로 학습합니다.</p>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전북대학 토목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한국스피치,웃음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전주매일 부사장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 노하우" 등 		
<2020학년도 1학기 모집>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주,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주,야간)	군산, 부안, 서원
전북과학대학교	스피치 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웃음치료 등)	정읍, 고창
원광보건대학교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익산, 완주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p>상담전화 (전제)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합니다.</p>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